

日本の 家政學教育에 관하여

나는 중화민국, 유럽의 국제가정학회, 美가정학회, 오끼나와 가정학회등을 방문했고 또 가장 가까운 貴國의 家政學會와 交流를 맺고 싶었습니다.

貴 學會에서 부터 의뢰받은 주제는 日本의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의 가정학교육이었으나 本人은 大學의 level에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문부성에 연락을 취해 교과과정 지도요령, 교과서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日本家政學會를 소개 하겠습니다. 日本家政學會는 1949년 創立하여 1971년 만 23년을 맞이했습니다. 1969년에는 20주년 특집호로서 日本가정학회 20년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 10주년 창립 때는 10년간의 일본가정학 문헌집을 發行했고 그후 20년째는 제 2집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家政學會 會館 建設을 계획했습니다만 아직 그 結實을 못 맺고 하나의 사무실을 빌리고 있습니다. 또 가정학 研究者의 양성과 그의 공헌에 대해 일본 가정학회는 家政學會賞을 設置하여 매해 그分野에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학은 대단히 넓은 分野에서 研究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學問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난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학회에서는 각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重要한 活動으로서 학회지를 發行하고 있습니다. 이 학회지를 세계 여러나라에서 읽을수 있도록 英文초록을 첨가하여 20주년 기념을 기회로 현재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家政學을 학문으로 체계화하는 동시 教育面에서 graduated course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초급대학 34개 4년제 대학 49개中 8개교가 master course를 세웠습니다. 초급대학 가정과의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社會進出 方法에 대해 일본에서는 대단히 고민거리입니다.

금년 8월에 나는 대단히 어려운 thema를 받았었습니다. 즉 “초급대학 교육에 대해 일본 가정학회는 무엇을 기대하는가?”였습니다. 그때 말한 초급 대학의 目的은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미국의 가정학과는 다른 유럽가정학의 domestic science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즉 國民들 生活에 직접 도움이 되고 人間生活에 도움이 되는 高度의 기술훈련을 바라는 實學이 곧 일본 초급대학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domestic science는 實際의 가정 생활面에서 미국의 가정학보다 根本的으로 科學的으로 行하여지고 있으나 學問으로서는 충분치 못합니다. 英國의 Queen Elizabeth College, University of Bristol에서만 master course가 있고 大學에서의 가정학이 체계화 된 것은 미국쪽이 훨씬 앞서있고 生活자체는 유럽쪽이 科學的으로 行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美國이 보다 나은 人間の 物質的, 精神

의 생활을 바라는 意味에서 家政學의 専門化에 可能性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60여년의 歷史를 갖고 있는 美가정학회가 1959년 50주년 기념에서 내 놓은 가정학의 Philosophy 라는 기사의 별책에서와 같이 個人生活의 개선이 가정, 사회의 발전 더 나아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50주년 기념에서 다시 12~3년지난 오늘 미국 가정학회에는 또 다른 변화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Home Economics 라는 명칭의 변경입니다. 즉 가정학의 내용과 실태가 그 명칭과 일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現在 가정학은 가정과 사회의 유기화 人間生活의 종합적인 과학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結局 미국의 유명한 Conel 대학 Pennsylvania 대학 등은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미국 가정학회는 1969년 총회때 가정학회 자체에 있어서는 학회와 대학교육의 학부명과 학교명을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명칭 변경에는 찬동하지 않았읍니다. Philadelphia 어느 대학에서는 대학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provide 는 경제로서 될수있고 near environment 는 가정이기 때문에 Home Economics 라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명칭이라고 했읍니다만 교과과정은 개편했읍니다.

<표 1> CORNELL University College of Human Ecology.

- ① Consumer Economics and Public Policy.
- ② Design and Environmental Analysis.
- ③ Human-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④ Human Nutrition and Food.
- ⑤ Community Service Education.

<표 2> Faculty of Home Economics Ochanomizu University

- 兒童學科 (Department of Child Study)
- 食物學科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 被服 " (Department of Textile and Clothing)
- 家庭經營 " (Department of Home Life Science)

現在 日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년제 대학에 master course 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 course 만으로는 가정학의 研究가 불비하여 doctor course 를 설정하자는 요구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doctor course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립되는 가정학과에 専門教授를 보내는데 대단히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한바와 같이 종래 일본 가정과 교육은 요리, 재봉, 육아등 실기교육을 행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가정학은 그 기술教育에서 자취를 감추고 전부 과학적인 基礎의 뒷받침을 必要로 하고 있으며 가정교육의 科學化를 위해서는 各 研究分野에 研究所를 설치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연구소의 研究結果가 그 學校의 教育에 特徴을 지워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본가정학회지에 실린 論文의 내역을 살펴보면 자연과학계(식품영양, 피복재료,

피복구성)와 人文科學系中에서 가정경제 분야가 현저하게 논문의 편수를 차지하고 피복사, 아동학, 가정관리 분야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학의 초창기에 있어 家政學을 전공한 사람이 大學教育을 담당하는 율이 적고 식품계통은 농화학, 피복관계는 공과계통을 전공한자들이 담당하여 研究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는 피복인문계와 아동학분야의 논문이 自然科學系 分野와 같은 程度의 논문이 나오므로서 完全한 家政學을 이룰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일본의 가정학회가 社會에 어느 程度 공헌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식품영양면으로는 학교급식, 영양지도를 하여 좋은 食습관을 指導하였고 일본國民의 부족된 영양을 발견 생산하여 일반국민의 수명을 연장시켰고 일본식품의 분석표를 만들어 日本人의 체위 향상과 영양권장량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조미료와 가공식품의 基礎인 研究에도 기여했습니다.

衣生活面에서는 4~29才의 의복의 표준치수를 설정하여 기성복에 공헌했고 직물의 견루도와 성능과의 관계를 研究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개척과 기준설정도 하였습니다.

아동학面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研究와 시설확장, 아이들의 집단生活指導와 가족관계 研究, 現在 問題時되어 있는 언어장애, 적응장애, 이상성적 아동들에 관해 研究를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가정경영面에서는 탁아소의 계획과 가정경영, 가정관리 지도문제, 가정의 지출의 적정연구, 저축에 있어 계몽적인 자료 제공, 주거 시설에 있어 위생문제 향상을 했고 가정活動의 동선문제에 관여하여 공동주택설계에도 공헌했습니다.

이상과같이 家政學이 社會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이 各國 家政學에서 바라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열리는 國際家政學會에서 貴 家政會를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며 韓國과 日本사이에 좀 더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여 학문을 交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71. 9. 27.

(일본가정학회회장 이나가끼 쇼텐博士(稻垣長典))